

사고전환을 위한 비교, 분석, 통합의 디자인 교육

김 인 애 (인덕, 웅진전문대)

교육이 목적을 지향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할 때, 그 지향하는 바의 방향(when)과 방법적인 제시(how)는 더욱 분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현대성의 원리는 인류의 역사 이래 분명한 사회적인 사실로서, 인간의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속도를 가속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제 '이미지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 21세기의 '이미지정보시대'에 있어 디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가 하는가, 과거 우리의 현대화가 감행시켜온 서양화되어진 한국화의 오늘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 새로운 조명을 하고자 한다.

사고의 전환 — 1. 인간의 現存성과 환경

인간이 역사를 지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역사란 바로 시간을 인식하는 결과로서 흔적의 공간을 남긴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것이 각 시대의 절대적인 지각대상으로서의 환경이요, 그 환경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계속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환경은 흔히 주변상황(surrounding)을 일컫는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다. 우리는 인간의 삶이 환경적 조건들에 참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와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을 갈라놓는 어떤 뚜렷한 경계선도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경관은 우리의 활동패턴들에 영향을 주며, 잘 파악되지 않는 미묘한 방식으로 기질과 태도들을 물들인다.」¹⁾

물질적인 풍요의 산업화과정은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천연적인 것으로부터 인공적인 것의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 및 사고형태를 만들어 왔으며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산업화의 최첨단에서 그 대량생산에의 적극적인 제품소비에 위해 과거 디자인은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창구로서 그 역할을 발전시켜왔으며,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의·식·주·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각대상으로 자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생산물의 가능성과 심미성의 조화를 표방하는 디자인은 어느덧 한 개인이나 조직의 사회적인 위상을 들어내는 기호체계로서의 '이미지소비'를 적극화하는 역동적인 수단으로 힘이 키워졌고, 그 거대해진 힘은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그 필요성(need)을 창출시키는 새로운 가치발생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제 디자인은 이와 같이 내재된 힘을 갖고 스스로의 각성의지에 의해 '이미지소비'와 '재생산'의 상업주의에의 단순한 편승이 아니라, 그 이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내는 미의식과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키워 나가므로써, 디자인 스스로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現存성의 인식 —

그것은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있다」²⁾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힘으로서의 철학이요, 새로운 미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비평의식으로서의 미학적사고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능력과 비평의식으로 스스로의 생산과 소비가 엮어내는 환경을 재인식할 때 단순한 원운동의 반복적인 구도로부터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교육이 인류역사와 함께 하여옴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춘 가변성 때문일 것이며, 그 변화에의 동기부여, 촉진, 촉매의 역할(pumping)을 소명 받았음을 아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교육의 시제는 바로 그러한 가능성의 미래시제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안주를 던지고 일어서 그 지향점을 향해 방향을 틀어 나가는 것임을 의심치 않는 것이다.

사고의 전환 — 2. 기하학적인 운동에서 역동적인 운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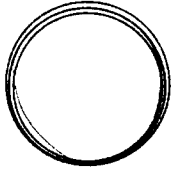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제 인간은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능동체인 동시에, 그 환경을 생산해 내는 역동적인 발산체로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적인 재생산 구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끝없는 이미지 재생산의 정원구도적인 기하학적 순환지점 한 곳에서 각도를 틀어보자.

정원의 반복은 각도를 바꾸면서 형태가 새로워지고 다양한 방향의 역동적인 순환구도를 그린다. 타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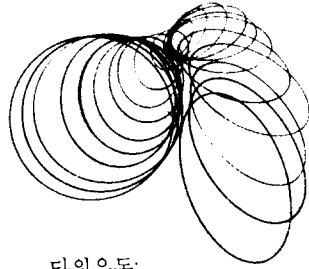
1) 미학과 환경/미학 제20편/한국미학회 '95

2) 하이데거와 禪/한스페터헨델/민음사 '95



정원운동:

- 3차원의 단순성
- 수직하강, 수직상승태도
- 완결성의 경직적 단절구조
- 안과 밖의 이원구조
- 현재시제적



타원운동:

- 4차원의 역동성
- 수직, 수평변화 수용태도
- 가변성의 유연적 확장구조
- 둘 다 모두의 통합구조
- 미래시제적

정원운동의 그것이, 논리와 이성의 기하학적 구조주의의 절대성에 의한, 권위와 배타의 수직적인 속성으로 스스로를 완결시키므로써 자체침몰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할 때, 타원운동의 그것은, 직관과 감성의 역동적인 탈구조주의의 상대성에 의한, 평등과 공존의 수평적인 속성으로 스스로를 이탈시키므로써 확산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한 가치의 답습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양면적인 가치의 판단을 위해, 스스로의 다각적인 실험에 의한 비교와 분석과정을 통해 각 개개의 성향을 깨달아 가르므로써, 자신의 고유한 가치로서의 긍정적인 '다름'을 발견하여 사회적인 '보편성'으로 통합되어 나갈 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의 확장된 세계화는 가능해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사고의 전환 — 3. 주체적인 정립위에 새로운 세계로의 확장.

'우리'라는 단어가 지니는 확장성은 결단코, 나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주인의식으로서의 능동적인 동참일 때만이 가능하며, 그것은 곧 너와 나를 가르는 이원구조의 주종적인 관계항이 아니라, 분리이전의 일원화된 구조의 상호역동적인 관계항에서 비롯되는 수평적 개념의 공존적인 성격을 지닌다.

과거 디자인이 경제전략에 의한 감각적 표현기능의 단계로서의 종속성을 띠었다고 한다면, 이제 한 사회의 방향을 예측하고 제시하는 제안자로서 그 사회적인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하여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디자인,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품의 소비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성향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잠재적인 이데올로기의 무서운 힘을 지닌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현대화가 왜곡, 굴절시킨 서양화된 한국화의 디자인 현실을 각성하고, 전통의 올바른 풍부한 기반위에서 현대화된 한국성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 비로소 탈경계의 세계화를 주체적으로 주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다원구조로의 세계현상이 지향하는 통합논리는 이질적인 양극대립을 어떻게 수용하며 조화시켜 나아가느냐에 초점을 모은다고 한다면, 21세기의 디자인 역시 그러한 이질적인 것들의 새로운 미적조합을 미의 식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하리라고 보겠다.

여기에는 재연하듯이, 분명하고 확고한 고유의 미의 식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wake)의 가치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단단한 기반위에서 세계를 수용하고 또한 세계를 향해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사고의 전환 — 4. 감각으로부터 깨달음의 美意識

시각언어로서의 디자인, 그것은 눈을 통해 보고(視) 깨달아가는(覺) 의사소통(言語)매개체로서, 깨달음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말해 디자인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시각적인 즐거움만을 담은 감각의 그릇이 아니라, 그 감각에 내재된 의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의 의식변화는 건강한 세계를 열어어나가는 근원적인 핵이 되어질 것이며, 더불어(together)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적인 보편기능으로서의 디자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각도를 달리한다는 것—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의 이동을 의미하는 바, 스스로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born again) 용기를 필요로 하는 자기성찰에의 의지인 것이다.

용기, 그것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무릅써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변혁에의 의지이기에, 이미지 생산자로서의 디자인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더욱 사회적인 소명의식으로서의 태도 전환을 역설함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Arnold Berleant³⁾의 한마디를 상기해 보며 본 논고를 마감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사물들이 우리를 만든다.”

3) 국제미학회차기회장, 미국 Long Island 대학 교수역임.